

기해년 서울로 문화나들이 떠나요

2019 전시·공연 일정

2019년에는 어떤 전시와 공연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요즘에는 서울로 문화나들이를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어 꼼꼼히 정보를 챙기면 좋을 듯하다. 올해에 예정된 전시와 공연 일정을 소개한다.

◆전시

겨울방학 시즌은 매년 대규모 전시가 열리는 시기다. 올해 역시 지난해 말부터 다양한 전시가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피카소와 큐비즘전' (3월31일까지)은 피카소를 중심으로 입체주의의 흐름을 살펴보는 전시다. 파리시립미술관 소장품 80점을 만날 수 있으며 피카소, 브라크, 레제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버 알머슨' (3월31일까지)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페인 화가 에버 알머슨의 작품 130여점을 접할 수 있는 전시며 '이매진, 존 레논전' (3월10일까지)은 비틀즈 팬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전시다.

그밖에 예술의전당에서는 90년간 유럽을 대표한 만화 '땡땡의 모험'의 작가 에르제를 조명하고, '땡땡(TinTin)'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회고전 '에르제 땡땡'전을 비롯해 '내셔널 지오그래픽 130주년 특별전', '매그넘 인 파리전', '신들의 나라 고대 그리스 보물전' '앤서니 브라운전', '한·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전 에릭 요한손전(가제)' 등이 대기중이다.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 등을 맞은 올해는 역사성을 담은 다양한 전시를 만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 설립 50주년을 맞아 굵직굵직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9월 개막하는 '광장'은 작가 200여명의 작품 500여점을 통해 우리 근현대 미술을 조명하는 전시로 기대가 높으며 이달 과천관에서 개막하는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등도 눈길을 끈다. 3월1일 남서울미술관에서 개막하는 '3.1운동 기념전-모두를 위한 세계',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3·1운동 상해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전' 등도 눈여겨 볼 전시다.

해외 거장들의 작품도 속속 선보인다. 3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 '한국 첫 대형 개인전'이 열린다. 호크니는 지난해 11월 경매에서 그림 한 점이 100억 원 넘는 액수에 팔리며 생존 작가 최고 기록을 세워 화제가 된 인물이다. 또 미국 개념미술가 제니 홀저, 토마스 사라스레노 전시가 이어진다. 국내 작가로는 서거 30주기를 맞은 추상 미술가 이응노, 일본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준 광인식, 정전 이상범, 조정 변관식, 김호득전 등이 눈길을 끈다.

전시

'피카소와 큐비즘전'

에버 알머슨전·존 레논전

3·1운동 100주년 기념전

영 데이비드 호크니·이응노

국내외 거장전 등 다채



LA필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공연

지휘자 장한나 5년만의 내한

LA필·런던필·필라델피아필

유자 왕·올리아 피셔·조성진

◆공연

올해 공연계 달력은 클래식 거장들의 내한, 국내 초연작, 해외 유명 뮤지컬 등으로 빼곡히 채워질 전망이다.

먼저 클래식 부문은 구스타보 두다멜과 미국 LA필하모닉의 공연 소식으로 뜨겁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LA필하모닉은 오는 3월16일 예술의전당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유자 왕과 협연한다. 또 블라디미르 유롭스키가 지휘봉을 잡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3월7일)의 공연에는 올리아 피셔가 협연자로 참여해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첼리스트에서 '마에스트로'로 변신한 장한나는 5년 만에 고국 무대를 갖는다. 장한나가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을 맡은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11월 13~14일)는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을 입동혁과 협연하고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을 무대에 올린다. 7년 만에 국내 리사이틀을 펼치는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은 12월 29일 예술의전당 공연 외에도 지역 공연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클래식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티켓 파워'는 여전히 전향 것으로 보인다. 조성진은 이번 피셔가 이끄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



스페인 화가 '에버 알머슨'이 3월3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11월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하는 상임지휘자 장한나.

라(6월24일)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야니크 네제 세갱이 이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11월10일)와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을 각각 연주한다. 이밖에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리사이틀과 200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 라파우 블레하츠-바이올리니스트 김복소리 듀오 등도 주목 받고 있다.

또 2010년 토니상 최다 수상작인 연극 '레드' (1월6일~2월10일)와 로맹 가리의 동명 소설을 무대에 옮긴 연극 '자기 앞의

생'의 초연(2월22일~3월23일), 국립극단 창작희곡 '고독한 목욕' (3월8~24일), '인형의 집, 파트' (4월10~21일) 등 연극계 소식도 풍성하다.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플래시댄스' (1월18일~2월17일), 한국 초연 10주년을 맞은 '잭더리퍼' (1월25일~3월31일), 국립오페라단의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5월10~12일) 등 굵직굵직한 작품들이 관객 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희망을 담은 씨앗단지

비움박물관 31일까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민속품을 전시 중인 비움박물관은 오는 31일까지 겨울 기획전 '씨앗단지'를 개최한다. 박물관은 춘하추동 사계절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 오래된 문명의 불씨, 그 겨울의 조용한 힘'을 주제로 다양한 씨앗단지 전시를 선보이고 씨앗의 생명력을 희망으로 삼았던 시절을 조명한다.

주요 전시품은 생명력을 머금고 있는 법씨들을 담은 씨앗 단지들과 뒤얽망, 밥을 짓는 데 사용했던 솥이나 주걱, 불씨를 담아 인 손을 녹여주던 화로, 화로 안의 불씨를 다독이던 부순이나 부젓가락, 인두 등 20여 점이다.

문의 062-222-66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씨앗단지'

국립나주박물관 방학맞이 문화행사

5일 '공명'의 흥겨운 악기여행 무대

국립나주박물관(관장은화수)은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기해년을 맞아 오는 5일 오후 3시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흥겨운 악기여행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며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더불어 전시되고 있는 특별전 '풍요의 땅 전라-천년의 시간을 걷다'를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



해 죽림사 과불(보물 제1279호), 운두서자화상(국보 제240호) 등 국보 4건, 보물 23건을 포함한 100여 건의 전라도 문화정수를 담은 문화재를 한 자리에 선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새해 첫 정기 강좌

7~31일 인문학 카페 노블

광주시민인문학 새해 첫 정기 강좌가 7일부터 31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카페 노블에서 열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오후 7시30분)과 토요일(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인문학, 철학, 소설창작, 영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월요일 인문학입문시간에는 명혜영 교수가 '철학적인 높이의 시선-최진석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에는 이진 소설가 '소설, 이론에서 실기까지'를 강의한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명혜영 교수와 노양진 교수가 각각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 '몸의 철학-신체화된 마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토요일에는 '영화로 읽는 인문학2기-삶, 여성, 가족, 개인에 관하여'가 열린다.

강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